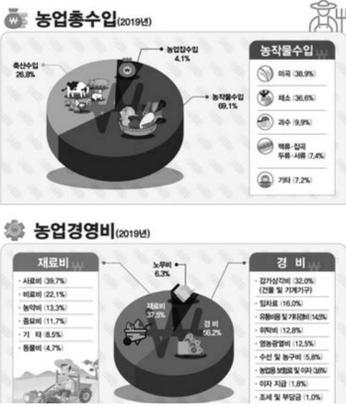


“돈 되는 작물 없다” 전남 농업소득 10년 전보다 하락

2019년 현재 전남지역 농업소득 세부 구성비



2019년 883만7천원...2010년보다 4만3000원 감소
농작물 수입 '미곡' 39%...경영비 등 지출은 매년 증가

고소득 작물 비중이 적은 전남 농업소득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농업소득은 오른 것과 대조된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전남지역 농가경제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농업소득은 88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6만원 가량(-25.7%) 떨어졌다.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서는 4만3000원(-0.5%) 감소했다.

10년 동안 전국 농업소득은 16만3000원 올라 1.6%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전남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142만4000원 뒤쳐졌다.

전남 농업소득은 9개 도(道) 가운데 경남(709만원), 강원(794만4000원)에 이어 세 번째

로 낮다. 감귤이 주요 작물인 제주(1527만7000원)와는 644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전남지역 농업소득이 역행한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작물 수입 구조에 원인이 있다.

지난해 농업총수입은 3074만7000원으로, 농작물 수입이 69.1%로 가장 많았고, 축산 수입(26.8%), 농업 서비스 수입(4.1%)이 뒤를 이었다.

농작물 수입 가운데는 미곡이 3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채소(36.6%), 과수(9.9%), 맥류·잡곡·두류·서류(7.4%), 기타(7.2%) 순으로 나타났다. 아열대 과일 등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가 적은 탓에 농업총수입은 전년보다 88만원(-2.8%) 줄어 들었다.

농업으로 인한 수익은 2년 연속 줄고 있는 반면,

농업경영비와 가계지출은 올라 농가부채는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남지역 평균 농업경영비는 2191만원으로 전년(1972만7000원)보다 218만원 가량(11.1%)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677만8000원(44.8%) 오른 수치다.

지난해 농업경영비에서는 감가상각비·임차료 등 경비가 56.2%를 차지했고, 사료비·농약비 등 재료비(37.5%)와 노무비(6.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지출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

지난해 전남 가계지출은 3289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5%(230만6000원), 10년 전보다는 41.7%(968만6000원)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등으로 구성된 소비지출과 가계용 조세, 부담금 등 비소비지출 모두 올랐다. 10년 간 전남 가계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4%로, 전국 평균(2.8%)에 비해 1.2%포인트 높았다.

농가부채 증가율도 전남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 농가부채는 연평균 3.2% 올랐다. 지난해 농가부채는 268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2%(247만1000원),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32.6%(658만9000원) 증가했다.

한편 전남 농가 이전소득은 2015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 이전소득은 1227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1123만원)보다 9.3% 많았다. 전남지역 농가소득(3932만원) 중 이전소득 비율은 31.2%로, 전국 평균 비중(27.3%)보다 3.9%포인트 높았다.

특히 지난해 이전소득 중 농업 직불금·농기계보조금 등 공적보조금이 94.3%에 달하는 1157만1000원으로 나타나, 전남 농가의 높은 보조금 의존도가 엿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인이 좋아하는 10대 김치 전문 숙성 모드 완성

위니아닷컴 신제품 출시

위니아닷컴은 2021년형 김치냉장고 '딤채'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니아닷컴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파김치, 오이소박이, 갓김치를 추가해 각자 최적의 숙성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10대 김치 전문 숙성 모드를 완성했다.

또 이전 모델의 일반 보관 모드와 대비해 폴리페놀 함량을 30% 높여주는 '발효과학' 숙성모드를 적용했고, 김치냉장고에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성향을 반영해 각종 주류도 응용 조건에 맞춰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주 슬러시' 메뉴는 영하 12도에서 10시간 이상 보관해 소주를 과냉각해 슬러시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외 기존 모델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았



던 이음식 재료와 셀러드의 맞춤 보관 및 고기의 감칠맛을 살리는 방온숙성 모드 등 딤채만의 정은 기술로 식재료 별 알맞은 온도를 적용하는 스마트 기능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스카프야? 가방이야?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4층 써스데이아일랜드 매장에서 스카프에 가죽끈을 달아 다양도로 활용이 가능한 '스카프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양동 반도유보라' 조합원 모집

광주 양동시장 1지구 총 372세대, 지하 3층~지상 26층

중흥동에 홍보관

양동시장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는 조합원모집 접수·필증 교부 후 조합원 모집공고 마친 뒤 28일부터 광주시 서구 양동에 들어설 '양동 반도유보라'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양동 반도유보라는 양동시장 1지구에 총 372세대,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84㎡ 300세대 ▲59㎡ 72세대 등이다.

양동시장과 양동 닭전머리 등 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주도로 도로 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됐고, 광주도시철도 1호선 인접 등 역세권이라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 민간 조합사업은 최저 평당 900만원대부터 시작되며, 추진위는 지난 7월 23일 반도건설과 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로 주택홍보관 오픈식은 생략했으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환경빌딩에 마련된 주택홍보관은 조합측에 예약 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이밖에 추진위는 조합가입할 때 신약사 계약 이외 다른 계약도 입금을 요구하면 의심이 필요하고, 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매매동의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주택홍보관 오픈식 대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해 광주서구청과 연계해 10kg짜리 쌀 100포를 지역사회에 후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특별재난지 농업용수 공급 재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중단됐던 특별재난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됐던 곡성, 구례, 담양, 영광 등 농업용수 간선수로교를 복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25일에는 상판이 붕괴된 담양 간선 2호 수로교를 일정 높이까지 성토 후 H빔으로 가교각을 만들고 상판은 용접했다.

이 수로교는 담양군 및 장성군 약 3300ha에 일일 52만t 이상 물을 공급하는 중요

시설이다.

구례 구만저수지 간선수로도 지난 22일 파형철관과 H빔교각 설치 등으로 응급복구를 마쳤다. 용수공급 대상 면적은 인근 271ha이다. 복구 전에는 수중모터로 긴급급수를 해왔다.

본부는 이외 곡성, 영광 등 전남 전 지역의 유실된 간선수로를 복구 완료했다. 영농기가 끝나면 지속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전면 재설치 또는 기존 수로교 철거 후 잠관을 설치하는 등 항구복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